

새농민 제11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한강희 신임 회장 취임...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생·발전 다짐

한국 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8일 전북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임하는 이기성 회장과 새롭게 취임하는 한강희 회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 그리고 도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이취임식은 한국 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강희 신임 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농민 회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더 나아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농협, 한국 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 회가 상생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이 열려 주목받았다.

행사의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상생과 나눔 실천을 위한 불우아동 돕기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국새

농민 특별자치도회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성금을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최종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업과 스포츠가 공존하는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북농협 및 농업인들과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농협의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과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

인이 진행 되었다.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건강한 식습관 정착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한국 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새롭게 취임한 한강희 회장과 함께 전북농협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이취임식은 농업의 미래를 향해 더욱 단단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고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자리를 지킬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는 19일 남원명품농업대학 학술대회가 열린 이백 행복나눔센터에서 남원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강 챙기고·농민도 돕고’

농협 남원시지부, 쌀 소비 촉진·아침밥 먹기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19일 남원명품농업대학 학술대회가 열린 이백 행복나눔센터에서 남원 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건강한 식습관 정립과 우리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동참 의지를 독려하고 참가자를 대상으로 쌀 가공식품인 식혜를 제공

했다. 또한, 농협은 디지털 종합영농 플랫폼인 NH농사 서비스 알리기 교육을 진행했으며, NH농사는 다양한 영농정보와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영농특화 앱으로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영석 지부장은 “앞으로도 건강도 챙기고, 농민도 돕는 아침밥먹기 운동을 추진, 범도민에 건강한 쌀 소비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전보건공단 전북, ‘제3차 안전
일터 조성의 날’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열)는 지난 18일 전주에 위치한 (주)신성건설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설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을 찾아 ‘제3차 안전일터 조성의 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황정호 지청장과 이상열 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원청 (주)신성건설 최형섭 현장소장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재·추락예방대책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주요 공정을 중심으로 원하청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재사고 대비하여 재해유형을 전파하고 중점 관리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황정호 지청장은 “봄을 맞이하여 건설공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주의되는 시점이므로, 현장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 요인별 핵심 점검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공, ‘KRC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성장 마중물 되다

올해도 ‘KRC신기술’ 인증과 현장 도입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KRC신기술’로 인증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마켓’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공공기관이 검증하고 등록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사는 중소기업이 기술마켓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기술만 인증하던 것을 특허 공백까지 포함하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공모 방식도 연 2회 정기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변경해

기업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규 ‘KRC신기술’ 인증 건수는 2023년 13건에서 2024년 17건으로 31% 증가했다.

또한 공사가 관리하는 사업 현장에도 ‘KRC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3건의 ‘KRC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총 78억 원의 기업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

공사는 올해도 ‘KRC신기술’ 인증을 추진한다. 2025년 현재, 전년 동기 대비 272% 증가한 41개 중소기업이 공모 신청했으며, 공사는 접수된 신기술과 특허 공백에 대해 ‘신기술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의 우수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경

심의 일정은 서류, 발표 심의는 27일 이고 협약 체결 및 지정서 발급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심의를 통과한 기술은 ‘KRC신기술’로 인증되며, 기술마켓에 등록되어 공사 사업 현장과 타 공공기관 등이 구입 활용하게 된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상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9일,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안정화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바이오진흥원 임직원과 입주기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혈액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특히 최근 혈액 보유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원하

고 헌혈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바이오 이은미 원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간단하고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다”며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건설 전북도회, 2025년 제2회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19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안과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제67회 정기총회를 4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재철 회장은 한국건설산업 개원 30주년 기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의 내용을 설명하며,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물량 창출, 적정공사비 확

보,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건설업계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물량 측면의 안정적 일감 확보 및 질적 측면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타사항에서 선금금 관련 과 기성으로 인한 주의 사항과 선금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고충 처리 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에 연계선 변호사를, 노무 자문에 윤진식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김옥기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